

# 자영 소규모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산보유실태분석

## Analysis on Financial Status of Small Family Business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배 미 경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정보전공

Bae, MiKyeong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College of Human Ecology, KeiMyung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small business households, and to analyze their invest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like age, income, education, job satisfaction, and region. The size of total sample was 2167 with basis of data analysis of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rom Daewoo Economic Research Cente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ir financial statu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small business family's financial status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ge, income, job satisfaction, and region. Households' investment on the primary financial institute such as bank was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 of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amount of investment on secondary financial institute such as mutual fund was differentiated by income, age, and region. The households' investment for insurance was affected by all socio-economic variables except region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for stock and bonds. The amount of net-asset for households was affected by the level of education, age, and income and the amount of debt most by age and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useful to develop the estimation tool for the small business households credit and also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s for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ose households.

**Key words :** financial status, small business, investment behavior

### I. 문제제기

최근 자영 소규모 가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실제 유통업체의 현황을 보더라도 매출액

과 고용면에서 중소기업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매출액의 73%, 종사자수는 94%를 이루고 있으나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가 5내지 19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은 80%이상이 개인기업의 형태이며, 10%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경제통계연보, 1999). 이렇듯 유통업과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여 자영 소규모 형태의 기업이 나라경제 전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은 자영 소규모 가계들에 대한

---

Corresponding author : Bae, MiKyeong  
Tel : (053)580-5864, (053)580-5885  
E-mail : baemik@kmu.ac.kr

육성방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방화에 관심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요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 소규모가계의 육성과 재래시장활성화 운동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울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경제 및 사회적인 격차를 최소화하는 완충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중심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자영소규모가계의 다각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결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자영 소규모 가계가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가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기업대출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융문제가 항상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소규모기업보다는 중기업에 집중되어져왔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유통에 있어서 쉽지 않고 금융기관의 담보나 보증인 문제 등 대출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금융권을 통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해야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대출차등금리의 적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영 소규모 가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영 소규모 가계는 우리 나라 가계의 25%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대우경제연구소, 1997) 이러한 가계의 비율은 경기가 불황이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더욱더 증가추세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영 소규모 가계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분석하고 소비행동과 자산보유실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영 소규모 가계의 계층별 다른 특징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지역생계형인 자영소규모 유통 및 제조업의 생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 소규모 가계를 위한 금융 및 기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자영 소규모 가계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자산보유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우리 나라 자영 소규모 가계의 현황 및 과제

자영 소규모 가계는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도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기존문헌에 의하면 소규모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의거하여 제조업에 속한 경우 종업원수가 50인 영세한 규모의 기업을 의미하며 전 산업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생계형이나 가족기업의 성격이 많고 종업원 수나 자본금 등 기타 여러 면을 통하여 기업들 가운데 가장 영세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기업의 형태를 대부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 소규모 가계로 분류하기로 하나, 기존문헌고찰의 경우 소규모기업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1) 소규모 유통업의 실태 및 문제점

매출액과 고용 면에서 중소기업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매출액의 73%, 종사자의 경우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다(경제통계연보, 1999). 다음 표는 유통업체별 매출액과 종사자에 대한 보고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화점의 경우 전체 유통업체의 매출액의 13%를 상회하고 있고 할인점, 편의점은 10%미만의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소매점과 수퍼마켓을 합하여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액의 규모는 78%정도로 상당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사자의 경우는 95%이상의 종사자 인구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소규모 유통업체의 활성화 정책과 선진화를 통

〈표 1〉 유통업체 형태별 매출액과 종사자 구성현황

구분	점포수(개)	매출액(A)		상시종사자(B)		1인당매출액 (백만원, A/B)
		천억원	비중	천명	비중	
백화점	101	130	13.3	29	2.2	487
할인점	2,000	45	4.6	32	2.4	139
슈퍼마켓	123	76	7.7	14	1.1	523
편의점	2,339	10	1.0	4	0.3	254
기타소매점	730,000	720	73.4	1,233	93.9	58
계	734,563	981	100	1,314	100	75

자료: 대한상의, 통계청, 1999

한 지역문화의 향상이 급선무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치가 지방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세입의 효과와 고용인구의 창출인데 대규모 유통선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은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영혁신 및 선진기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유통업체 별 매출액과 종사자 구성현황을 볼 때 소규모 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소규모 제조업의 현황

중소기업법은 산업분야별로 소기업(소규모기업)과 중기업을 소기업과 원칙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업에 속한 소규모기업은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영세한 규모이며 소규모기업은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소규모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가 5내지 19명인 경우인 소규모기업은 80% 이상이 개인기업의 형태이며, 10%정도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기업의 규모, 즉 상시종업원수가 많아질수록 개인기업의 형태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종업원수가 200인이 넘는 중기업을의 경우는 96%정도가 주식회사의 형태이고 개인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소규모기업과 중기업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경제통계연보, 1999).

소규모기업의 차입금 조달원을 살펴보면 종업원수가 5~19명 규모의 소규모기업이 제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은행융자는 45.0%, 제 2 금융권으로부터는 14.9%, 나머지 대부분을 사채에 39.8%나 의존하고 있다(공명재, 1997).

이와 같이 소규모기업은 사채의존도가 높아 소규모기업은 제도권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제도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 예컨대 대출에 대한 담보능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은 생업이나 가업적 성격이 강하고 중기업은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조직이 갖춰져 있고 이를 토대로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기업과 소규모기업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은 다시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규모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결의가 시급하다고 본다.

소규모기업은 사업체수가 많고 업종, 업태, 경영조직 등이 천차만별하여 보는 시각이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단연 소규모기업이 90%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중기업, 소규모기업, 대기업의 순서이나 비슷한 비중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은 업체 수에 있어서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나 부가가치와 생산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은 부가가치 면에서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소규모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무시될 수 없을 만큼 소규모기업이 우리 나라 노동력의 상당히 큰 부분을 고용하고 있으며 80%가 넘는 소규모기업이 비법인 형태의 개인기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소규모 기업적인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면 소규모기업육성은 바로 국가경제

의 원동력과 직결된다(공명재, 1997; 성영모, 1997).

### 3) 자영 소규모 가계의 경제적 역할 및 과제

자영 소규모 가계의 경제적 역할은 우선, 국민경제의 활력 있는 다수로서 평가받아야 하며 생산과 고용 등에서 소규모기업은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은 중기업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으로 말미암아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기업환경의 변화에 소규모기업은 신속하게 적응하여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기업은 기술개발의 저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개발이란 결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기업은 소비자만을 위한 제품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기술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기업의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기업은 중기업과 협조적 분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며 소규모기업은 기업가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위 벤처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들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여 주며 자유 경쟁적 시장제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공명재, 1997; 장한필, 1987).

다른 각도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영 소규모 가계의 역할을 보면 우선 경기의 순환의 의미에 있어서 경제·사회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완충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소규모 기업은 자본의 외임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수요변동에 따른 시장의 융통성 및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가속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장한필, 1987). 자영 소규모 가계는 산업의 생산과 고용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는 달리 국가의 경제력을 분산시키므로 시장집중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자유경제체제에서의 시장기능을 확대시킨다.

자영 소규모 가계의 활성화는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도 균형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수적 우위에 의

해 중산층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자유자본주의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게된다.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영 소규모 가계는 대기업 및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 사업성향상과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과 인구과밀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대로 인하여 제조업의 지방분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대도시 지역의 공업용지 가격상승과 대도시 대규모 공업 단지 내에서의 더 이상의 공업용지 확보상의 어려움과 대도시로부터의 공해산업이 배출되고 과밀 도시지역으로부터 공장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기존업체들의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방의 소득원 개발과 지방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과 함께 대도시와 지방상의 성장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규모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하루도 수없이 명멸하는 소규모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지방에 산재하는 이들 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지역으로부터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퇴형 산업의 지방입지를 유도함과 아울러 이들 기업이 지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경제와 융합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장한필, 1987).

자영 소규모 가계에 대한 육성은 시장이 세분화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규모기업의 발전은 상호보완적인 분업체제를 통하여 중기업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같은 맥락 하에서 대기업의 발전도 가져 올 수 있다. 소규모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의 증대는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영 소규모 가계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기술이 개발될 때 그 상업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우가 많다.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중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기업들도 특화한다면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 소규모 가계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규모기업이 금융기관의 담보나 보증인 문제 등 대출조건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용융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소규모기업인은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금 및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관행은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가능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절대액 수준에서 늘려 자금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는 대출을 채권화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을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영 소규모 가계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소규모기업의 신용문제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기능을 제고하고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하고 끊임없이 재교육을 할 때 우리의 신용보증제도는 정착되어 갈 것이며 새로운 금융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집단대출제도나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하여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규모 제조기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정책도 적절하게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공명재, 1997; 장한필, 1987; 성영모, 1997). 정부는 단기간의 효과에 급급하지 말고 소규모기업은 우리경제의 무수한 활력소라는 인식 하에 인위적인 자금배분을 금융기관에 강제하는 대신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자영 소규모가계의 소득 및 금융자산 보유실태

### 1) 자영 소규모가계의 자산보유실태

한국은행(1996)은 도시가계 가구주의 직업별 저축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가 저축보유액이 가장 많고,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기타, 일용근로자 순이었다. Toivonen(1990) 직업과 소비지출 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소득과 소비지출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직업은 소비유형에 대해서 소득보다 강력한 요인이며 직업효과는 소비지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양정선(1991)은 직업에 따라 저축율과 가계저축규모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황덕순, 주문자(1999)의 연구에 의하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영업자구가 봉급생활자 가구보다 소득과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 중 금융상품, 소득 부동산 소득, 예금, 주식보유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금융상품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득과 부채율은 자영업자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나 이 결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평균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비교적 큰 액수로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을 선호하게 되며 그 결과 보유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 자영업자 가구의 부의 축적은 더욱 쉬워진다. 자영업자는 노후생활을 대비해 예금과 보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과 금융자산이 서로 강하게 상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급생활자 가구가 퇴직금 등으로 노후를 위한 사회적인 준비가 수반되는 것과는 다르게 자영업자는 노후대비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과 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1987)는 가구의 자산소유에 영향을 주는 화폐관리행동을 연구하였는데 순소득이 높을수록 소유한 자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avis와 Schuman(1987)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많았음을 밝혔다. 가계의 소득수준과 금융자산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대부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자산구조에 대한 가계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arner & Cramer, 1995; Hira, 1987; Davis, 1987; Titus, 1989; Wellen & Peck, 1990; Sumarwan & Hira, 1992; Bryant, 1986; Toivonen, 1990; 양세정 & 이영호, 1996). 양정선(1991), 양세정 · 이영호(1996) 역시 직업에 따라 저축율과 가계저축규모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 2) 자영 소규모 가계의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존문헌에서 자영 소규모 가계의 가계재정상태 및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영업자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직업, 가족수, 소득원수,

주택소유형태, 거주지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재정자원의 축적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많을수록 지출율보다 저축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순미, 1998). 또한 가장의 교육수준은 높은 교육수준이 전문성 및 기술과 관련하여 영리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Heck, et. al., 1993), 직업에 따라서는 Rowe(1993) 등의 연구에서 9가지로 분류된 직종 중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마케팅 및 세일즈였다. Heck 등(1993)의 연구에서 가족수가 많은 가계에서 가족기업소득 대 총 가계소득의 비율이 더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을 가족수가 많으므로 인해 이들이 가족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기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갖거나, 가족 기업종사자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져올 수 있는 가족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Heck(1992)의 연구에서 6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가 근무시간과 소득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alker 등(1993)의 연구에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여성기업가의 순사업소득에 부적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기업가의 순사업소득에는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밖에도 자영 소규모 가계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의 순소득이 더 많게 나타났다(Rowe et al. 1993).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자료

본 연구는 1997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1993년부터 1차 실시되었으며 1997년 5차 KHPS에서는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가구 중에서 5.5%가 탈락하여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가구 수는 2724가구였고, 개인용 설문지의 표본 탈락율은 6.0%로서 개인용 설문지의 표본은 6320명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자영 소규모 각계만 해당되어 총 표본수는 2167명이다.

#### 2. 측정도구

##### 1) 자영업가구

자영 소규모 가계를 경영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직업의 구분에서 일반사업 및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 2) 계층군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사용하여 계층을 구분하였으며 각각계층은 독립변수로서 분산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두 변수 이상이 상호작용 한 계층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검증된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각각의 독립변수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자산보유실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 소득계층(income): 5단계로 나누었으며 1그룹은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시작하여 단계별로 100만원씩 증가시킨 소득수준으로 하고 5그룹은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를 포함시켰다.
- 교육수준(education): 무학, 초등학교 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그리고 대학이상으로 총 6 단계로 구분하였다.
- 연령(age): 25세 미만은 표본 중 3명으로 제외시키고, 25세-35세로 시작하여 연령계층을 6단계로 나누었다.
- 사업만족도(satisfaction of business): 사업만족도에 필요한 세 가지 문항의 점수를 총점하여 12점이하인 경우를 하, 12점에서 19점 사이를 중, 그리고 19점 이상인 경우를 상으로 나누었다. 사업만족도에 해당하는 세 가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9로 나타났다. 사업만족도에 포함된 문항내용으로는 수입의 안정성, 근무내용 및 환경, 사업의 장래성으로 각각의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업만족도의 경우 소매유통경영자들의 재정상태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재정상태와 사업만족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민정, 홍성희, 배미경),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2> 독립변수의 측정수준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93	32
	100 이상-200 미만	875	40.5
	200 이상-300 미만	413	19.1
	300 이상-400 미만	84	3.9
	400 이상	98	4.5
교육수준	무학	95	4.4
	초졸 이하	263	12.2
	중졸 이하	339	15.8
	고졸 이하	979	45.5
	전문대졸	167	7.8
	대졸 이상	309	14.4
연령	25세 이상-35세 미만	324	15
	35세 이상 -45세 미만	768	35.5
	45세 이상 -55세 미만	488	22.6
	55세 이상 -65세 미만	384	17.8
	65세 이상	196	9.1
지역	서울	743	34.4
	5대도시	522	24.1
	중소도시	624	28.8
	군부지역	274	12.7
사업만족도	<12 하	1428	66
	12-19 중	551	25.5
	<19 상	184	8.5

- 지역(place): 이미 데이터에서 분류되어진대로 서울, 5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소재지를 포함한 군부지역으로 나누었다. <표 2>는 독립 변수로 사용된 소득계층, 교육수준, 연령, 사업만족도, 지역에 대한 측정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수준은 자산보유실태와 구분하여 가계의 재정 안정성의 측면에서 순자산을 그리고 가계의 자본 유동성의 측면에서 소득을 포함시킨다.

### 3. 분석방법

#### 3) 자산보유실태 측정수준

제 1 금융권은 통과금융기관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제 2 금융권은 비통화 금융기관을 지칭하며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 투자신탁 등을 포함한다. 이외의 가계의 투자자금을 계, 사채, 부동산, 주식, 채권, 보험으로 구분하였다.

각 독립변수를 계층으로 나누어 자영소규모 가계의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수준, 제1 금융권, 제2금융권, 계, 사채, 부동산등의 평균 투자보유액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4) 재정상태 측정 수준

총자산은 부동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금융권 및 비 금융권 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부채를 측정하였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이며,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재정상태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소규모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표 3〉 소규모가계 가구의 평균자산보유실태 (단위: 만원)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 1금융권	856.90	2805.22	0	50000.10
제 2금융권	191.04	749.45	0	10000.50
주식	60.95	653.16	0	10000.00
채권	3.81	53.23	0	1124.10
보험	15.19	21.93	0	250.20
계	257.22	708.55	0	9000.00
부동산	2739.67	9298.51	0	100000.10
사채	126.86	727.23	0	9997.00
유동자산	1496.79	3252.64	1.3	52201.00
총 자산	4236.46	10687.78	1.6	106801.30
총 부채	1438.86	3659.64	0	50000.60
순자산	2797.60	10460.37	-30474.8	106200.70
소득	188.29	129.60	0	997.00

소득수준의 경우 표본의 67%가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300만원 이상 가구는 10.1%로 평균적으로 일반 근로자 가구에 비해(도시가계연보, 1997)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5세에서 45세 사이의 표본수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의 표본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45.6%를 이루었고 전문대 및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표본의 경우 약 2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의 표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5대도시, 군부지역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은 소규모 가계의 평균자산보유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부동산의 경우 자가를 포함한 개

념이며 따라서 순자산의 평균값이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유의해야 한다.

## 2. 분산분석 결과

### 1) 소득수준에 의한 자산보유실태양식의 차이

소득수준별로 자산보유실태양식과 금융자산의 보유를 비교한 결과,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제1, 2 금융권 모두, 그리고 보험, 계, 부동산, 사채에 있어서 계층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총 자산과 부채에 있어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순자산 또한 소득수준별로 유의

〈표 4〉 소득수준별 자산보유실태 및 재무상태의 차이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 이상	F값
제1금융권	539.87a	670.48a	1023.68b	1011.08b	4274.49c	38.02**
제2금융권	176.02a	143.07a	214.10a	294.10b	587.18c	10.70**
주식	15.80	85.05	73.75	0.1	163.36	1.95
채권	5.25	2.52	4.16	0.2	6.83	0.43
보험	10.38a	13.33a	19.31a	42.37b	39.49b	35.26**
계	166.80a	249.53a	301.69a	561.55b	600.00b	10.74**
부동산	2593.32a	1825.60a	3712.13b	4078.57b	7444.71c	23.40**
사채	111.88	104.23	194.66	47.62	163.53	1.38
유동자산	1014.97a	1254.58a	1811.75a	1914.35a	5821.08b	48.09**
총자산	3608.29a	3080.19a	5523.88b	5992.92b	13265.79c	40.19**
부채	907.00a	2414.67b	4401.54c	2356.25b	1515.00b	18.92**
순자산	1805.77a	1951.44a	3964.73b	1731.38a	13361.45c	31.12**

\* p&lt;.05, \*\* p&lt;.01



〈표 5〉 교육수준별 자산보유실태 및 재무상태의 차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F값
제1금융권	644.62a	512.24a	756.74b	798.73b	926.32c	1449.15d	3.86**
제2금융권	209.36	182.91	213.56	195.59	224.02	136.16	0.478
주식	11.05	5.81	47.91	74.49	140.35	46.79	1.11
채권	0.35	0.03	0.95	6.34	5.72	1.01	1.18
보험	10.69a	10.97a	12.41a	17.55b	23.05b	15.29a	4.39**
계	150.52a	182.02a	291.67b	250.55b	256.81b	357.66c	2.45*
부동산	4045.80c	3011.89c	1461.31a	2695.15b	2048.80b	4102.94c	3.24**
사채	17.89	120.14	171.72	98.25	123.49	195.44	1.47
유동자산	1033.80a	1003.16a	1482.56b	1423.98b	1676.71b	2186.19c	4.50**
총자산	5079.60c	4015.05b	2943.87a	4119.13b	3725.51b	6289.13c	3.51**
부채	1026.15	1577.95	1189.25	1354.25	1959.62	1732.43	1.81
순자산	4054.90c	2471.64b	1740.86a	2769.79b	1745.31a	4545.84c	3.08**
소득	167.63a	140.91a	159.34a	199.69b	201.63b	192.10b	13.01*

\* p<.05, \*\* p<.01

한 차이가 있었다. 분산분석 다중비교법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과 400만원이상 집단간사이에 제1 및 제2금융권과 부동산보유액면에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이 유동자산과 순자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2) 교육수준에 의한 자산보유실태양식의 차이

교육수준별로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 1 금융권과 보험, 계, 그리고 부동산만 계층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유동자산과 총 자산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부채는 유의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순자산에서는 계층별 차이가 유의했다. 소득

의 평균액은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험의 경우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졸업한 표본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평균보유액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의 경우 초등학교와 무학의 경우 그리고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연령의 관련과 더불어 나타나는 연구결과로 추론되어지며 자영업자의 부동산 보유액은 교육수준별로 차이는 났지만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연령에 의한 자산보유실태양식의 차이

연령계층별 자산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제2 금융권, 보험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 연령별 자산보유실태 및 재무상태의 차이

	25-35세	35-45세	45-55세	55-65세	65 이상	F값
제1금융권	737.11	810.71	1133.94	779.97	660.53	1.48
제2금융권	122.89a	255.88b	116.77a	256.01b	108.83a	3.78**
주식	15.83	91.14	98.76	21.52	4.08	1.51
채권	5.61	2.24	8.25	0.78	0.02	1.32
보험	17.79c	20.29c	11.65a	13.01b	9.65a	8.40**
계	190.19	285.56	278.35	262.10	203.98	1.77
부동산	2047.04	2212.63	3221.94	3538.85	3282.93	1.98
사채	106.23	128.24	198.96	90.55	20.41	1.89
유동자산	1177.85a	1573.78b	1835.02c	1410.94b	997.85a	2.84*
총자산	3224.89	3789.41	5056.96	4949.79	4280.78	1.91
부채	1644.64b	1575.37b	1701.04b	921.24a	946.14a	3.27**
순자산	1552.76a	2201.16b	3341.64c	4088.97c	3336.07c	2.99*
소득	211.64b	221.21b	162.24a	131.07a	146.97a	23.66*

\* p<.05, \*\* p<.01

유동자산, 부채, 순자산, 그리고 평균소득액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중비교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금융권의 경우 35세와 45세 사이 그리고 55세와 65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한편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인 45세에서 55세 사이가 비교적 평균보유액인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의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출증대의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4) 사업만족도에 의한 자산보유실태양식의 차이  
사업만족도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 1금융권과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직업만족도로 나누어진 그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서만 그룹별 차이를 보이고 다른 재무상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졌다. 다중비교법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금융권의 경우 사업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중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보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의 경우 사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위험관리에 대한 대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 사업만족도에 따른 자산보유실태를 살펴본 것은 사업의 만족도

〈표 7〉 사업만족도에 의한 자산보유실태 및 재무상태의 차이

	하	중	상	F값
제1금융권	844.50b	667.88a	1461.42c	5.57**
제2금융권	180.02	199.09	249.37	0.76
주식	48.45	104.08	31.79	1.60
채권	3.97	2.31	5.08	0.27
보험	14.77a	14.90a	25.30b	5.55**
계	250.45	288.59	237.71	0.63
부동산	2872.74	2344.70	2958.80	0.68
사채	114.46	175.26	47.83	2.59
유동자산	1441.85	1437.21	2033.21	2.75
총자산	4314.60	3781.91	4992.02	1.01
부채	2594.03	2351.75	3380.60	0.43
순자산	1271.09	1328.83	-378.60	1.27
소득	176.35a	185.26b	235.14c	16.68**

\*p<.05, \*\*p<.01

〈표 8〉 지역별 자산보유실태 및 재무상태의 차이

	서울	5대도시	중소도시	군부지역	F값
제1금융권	789.47	745.56	1070.55	730.55	1.61
제2금융권	143.12a	195.93b	163.34a	371.79c	6.73**
주식	51.80	97.08	69.11	1.02	1.35
채권	5.92	0.64	4.66	0.82	1.32
보험	14.01	18.08	16.14	14.83	1.24
계	382.35c	158.76a	224.41b	193.32b	12.41**
부동산	1808.12a	2490.68b	3142.00b	4859.49c	7.80**
사채	138.68	145.63	107.92	81.75	0.88
유동자산	1511.34	1343.60	1640.03	1379.27	0.71
총자산	3319.47a	3834.28a	4782.03b	6238.76c	5.75**
부채	2445.80b	2095.81b	1645.73a	5533.33c	3.55*
순자산	1984.31a	2724.47b	3193.57c	4240.53c	3.55*
소득	194.87	177.82	189.88	186.77	1.82

\*p<.05, \*\*p<.01

가 투자행동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되어 투자행동이 차이가 난다면 자산보유실태 또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 포함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만족도는 소득수준과 제1금융권 그리고 보험보유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에 따른 자산보유실태양식의 차이

도시크기별로 4개의 지역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2금융권과 계, 부동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총 자산과 부채보유액을 비롯한 순자산보유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비교법의 결과를 보면 제2금융권의 경우 군부지역에서 평균보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접근의 용이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군부지역의 경우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의 접근이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 용이한데서 연유한 결과로 추론되어 질 수 있다. 계의 평균보유액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독특한 연구결과를 시사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도 역시 군부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영 소규모 가계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지역별, 그리고 사업만족도로 구분되어진 계층별 자산보유실태의 차이와 재무상태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제 1 금융권에 대한 투자보유액은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사업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2 금융권에 대한 투자보유액은 소득수준, 연령,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 2 금융권에 대한 평균보유액이 5대도시와 군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5대도시의 경우는 지역민이 지역은행에 대한 밀착도가 강해 지역은행에서 파생된 제 2금융권의 고객확보가 용이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군

부지역의 경우는 통화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쉽지 않고 지역별로 형성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서 이러한 결과가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제 2 금융권의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서 제 2금융권 상품 평균 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투자신탁을 이용하는 가계의 경우 비교적 연령이 중년층 이상으로 구성되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령별로 제 2 금융권 보유액이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은 흥미있는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제 2 금융권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여겨질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금융자산의 보유액의 차이가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볼 때(배미경, 1999) 본 연구의 결과 중 교육수준에 따른 제 1 금융권, 보험, 계, 그리고 부동산 보유액의 차이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보험은 지역을 제외한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직업별로 나누어진 계층별 보험보유액의 차이를 보였다. 계와 부동산은 동일하게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지역별로 보유액의 차이를 보였고 사채는 소득수준에 의해서만 그룹별 보유액의 차이를 보였다.

주식과 채권은 연구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과 채권의 경우 평균보유액이나 투자자의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유의성을 발견하기 힘든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의 경우 Tobit과 같은 제한적 종속변수를 다루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주식투자자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소규모 가계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계층별 투자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순자산의 경우 교육수준, 연령,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나누어진 그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채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사업만족도에서 그룹별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영 소규모 가계의 소득수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영 소규모 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자 보다는 지역간 소득의 격차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자영 소규모 가계를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분석을 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명목소득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지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 소규모 가계의 소득은 물가변동이나 생활지수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직업의 종류와 같은 내적인 요인이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자영 소규모 가계의 소득수준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금과 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근로소득자와 구분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 및 중기업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전후방에 걸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전문생산체제의 구축으로 수출산업의 저변을 이루는 등 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성영모, 1997). 소규모 기업은 원료조달과 입지적 조건 등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취시켜 지역에 적합한 기업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간,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영 소규모 가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한 보다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각 항목별 자산보유액은 투자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제한적 종속변수의 연구방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자산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의 통제하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 소규모 가계가 지역별로 소득수준의 차이가 없었던 것에서 볼 때, 업종별로 재무상태의 분석과 더불어 자산보유실태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영 소규모 가계의 재정지원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금융지원조달을 위한 소규모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자영 소규모 가계의 신용평가기준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던 자산보유액의 비율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업종별로 비율분석을 통한 신용평가기준을 만들어 자영 소규모 가계의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연구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소규모가계, 자영업가구, 자산보유실태

## 참 고 문 헌

- 김민정, 홍성희, 배미경(2001) 대구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소매유통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unpublished 정책보고서.
- 공명재,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의 소규모기업, 국은경제연구소.
- 공명재,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계명대학교 산업경 영연구소, 30권 1호, 271-294.
-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보고서, 1994.
- 국은경제연구소, 국민경제리뷰, 제124호, 1996. 5. 20.
- 대우경제연구소(1998). 1997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 배미경(1999). 한국가계의 저축결정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2권 2호, 135-157.
- 백낙기·양현봉·조덕희, 중소기업금융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4. 12.
- 성용모, "소규모기업의 금융이용 실태분석과 효율적 재무전략의 수립", 국은경 제연구소, 한국의 소규모기업 1993년 상반기.

- 성용모(1997), 소규모기업의 대출차등금리 적용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중소기업학 회지, 19권 2호, 229-249.
- 양세정, 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 요인. c 대한가정학회지34(2):201-215.
- 양정선(1991)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분석.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의 청구논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기업실태 및 동향. 1994. 1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1996. 3.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통계연보, 1999.
-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1997). 사회계층 이론-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은행(1996).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 홍두승, 김병조, 조동기(1997). 한국 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통계청. 1993. 12, pp. 5-50.
- 황덕순, 주문자(1999).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비교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11.
- Altman, E. I., "Financial Ration,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 *Journal of Finance*, vol. 23 No.4 1968, pp. 589-609.
- Bryant. W. K(1986). As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19-35.
- Davis. E. P. Schuman. W. R. (1987).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A Comparison of Low-And High-Income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246-258.
- Deakin, E. B., "A Disriminant Analysis of Predicto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2, pp. 167-179.
- Hira. T. K. (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183-194.
- Kleka, W. R., *Discriminant Analysis*, Sage Publications Inc., 1981.
- Ohlson, J. S., "Financial Ratios and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 Saunders, A.,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Irwin Inc., 1994.
- Stephen D. Prowse, "Corporate Finan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Legal and Regulatory Influences on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3rd Quarter 1996.
- Sumarwan. U. Hira. T. K. (1992). Credit. Saving, and Insurance Practice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Prepe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among Rural Househo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1(2):206-227.
- Titus. P. M. Fanslow. A. M.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309-318.
- Wellen. P. D. Peck. C. J. (1990). Effect of Human Capital Factors on Income and Net Asset Amount of Older Wom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107-119.

(2001. 5. 30 접수)